남측 확성기 심리전 '체제 위협' 인식 초강력 도발

"무차별 타격" 연일 위협
남측 대응태세 떠보기 의도
군당국 전단 활용도 검토

北 서부전선 포격 배경

북한군이 20일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를 향해 포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군이 서부전선에서 우리 군을 향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발사하자 우리 군도 북한군의 로켓 발사 지점을 향해 포탄 수십발을 대응 사격해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상승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은 1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하자 북한군은 무차별 타격을 경고했다.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지난 15일 '공개경고장'을 통해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는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 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군은 남측 확성기 타격을 노린 훈련도 최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군이 실제 확성기 방송 지역에서 포격 도발에 나선 것은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만 쏘면서 우리 군에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은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북한군에 골칫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북한 지도부는 남측의 심리전을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보유한 대북 심리전 수단은 '자유의 소리'로 불리는 심리전 방송(FM)과 확성기 방송, 전광판, 대북전단 등이 있다.

2004년 6월 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하면서 모든 심리전도 중단됐다가 FM 방송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확성기 방송은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DMZ 지뢰도발을 계기로 각각 재개됐다.

FM 방송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음악 등 사전에 녹음된 내용으로 1회 4시간, 하루에 3회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FM 방송은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확성기 방송(고정식)은 출력을 최대로 하면 야간에 약 24㎞, 주간에 약 10여㎞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이 들려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파되는 방송 내용은 주로 북한 군부 인물 처형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지구촌 소식, 날씨 정보, 음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 과거에 철거했던 전광판을 다시 설치해 가동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북전단(일명 삐라)도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군 당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서 수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당시 대북 심리전단지에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북한의 개혁 개방 촉구,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20일 서부 전선에서 우리 측에 로켓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포탄 수십발을 북한군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mm 포탄으로 대응 사격했다. 사진은 우리 군이 운용중인 155mm 견인포의 훈련사격 모습. /연합뉴스

北 최근 도발 일지

▲2010.3.26=천안함 피격
▲2010.11.23=연평도 포격
▲2011.4.12=농협 전산망 해킹
▲2014.9.6=동해 신형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2015.8.4=서부전선 보병 1사단 DMZ 구역에 목함지뢰 매설, 아군 2명 중상
▲2015.8.20=북한군,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화기 발사. 아군 대응사격

경기 연천·파주·김포·강화 주민 긴급 대피

軍 경기 2000여명 대피명령

20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과 관련,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파주·김포와 인천 강화지역 주민 약 2000명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20일 오후 4~5시 사이 군의 대피명령에 따라 연천군 중면·신서면, 김포, 인천 강화 주민들이 각 대피시설로 우선 대피했다. 파주 민통선마을 등의 주민들은 오후 7시께 대피명령에 따라 이동을 시작했다.

민통선마을 안에서 농경 작업중이던 외부 주민들과 파주 임진각 등 안보관광지에 있던 상인과 관광객들도 전원 철수 조치됐다. 연천지역에서는 중면 219명·신서면 95명이 각각 대광리·도신리·삼곶리·횡산리 대피시설로 이동했다. 육군 28사단 휴가복귀자 15명도 일단 연천군청 대피소로 이동했다.

파주지역에서는 유일한 비무장지대(DMZ)내 마을인 군내면 대성동 마을과 민통선 마을인 진동면 해마루촌·통일촌에서는 280여가구 800여명이 대피명령을 듣고 대피소로 장소를 옮겼다. 김포지역 주민 494명, 인천 강화지역 주민 300여명도 인근 학교와 대피시설 등지로 피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대피 조치 직후 "20일 오후 5시 10분께 연천군 중면 횡산리와 삼곶리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방송을 했다"며 "인근지역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위기대응상황실을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로 격상했으며 관련 부서 직원을 전원 대기 조치했다.

또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작전상황반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112 타격대 등 작전부대에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서부전선 남쪽 경기도 연천군 남면 지역으로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2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인근 대피소에 마을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中·美 순차방문 국정 2기 정상외교

내달 3일 中전승절 참석 열병식도 참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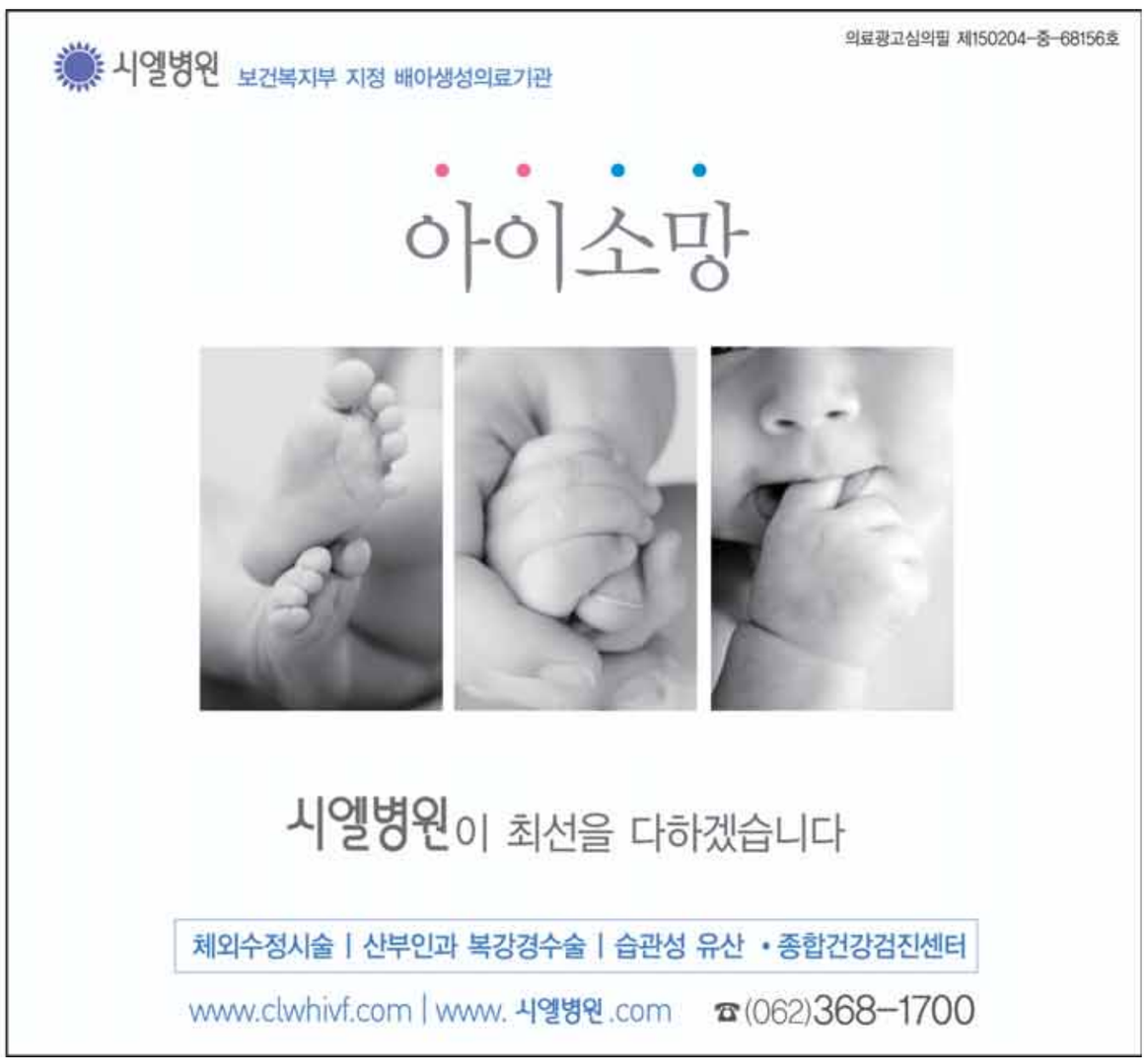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중국을 방문하며 '국정 2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기념식 참석을 위한 이번 방중은 오는 25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는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처음 맞는 해외출장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번째 한중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미 오는 10월16일 미국을 찾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날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 세계 주요 2개국(G2) 미국,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셈이다.

이는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G2를 상대로 정상외교 행보를 벌인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동맹국 미국과 현 정부 들어 부쩍 가까워진 중국을 상대로 '균형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공조 및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계속되는 북한발 군사적 위기상황을 억지해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문 순서는 취임 첫해 미국(5월)에 이어 중국(6월)을 찾았던 것과 반대다.

이번 방중은 또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의 역내 외교 주도권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일본이 한국과 과거사 문제 공조를 통해 자신을 압박해온 중국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우리나라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일각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한국외교 소외론'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핵심 행사인 열병식도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열병식은 참관하지 않고, 열병식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리셉션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는 설정 자체가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럴 경우 한중관계를 고려해 힘들여 중국 방문을 결정한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